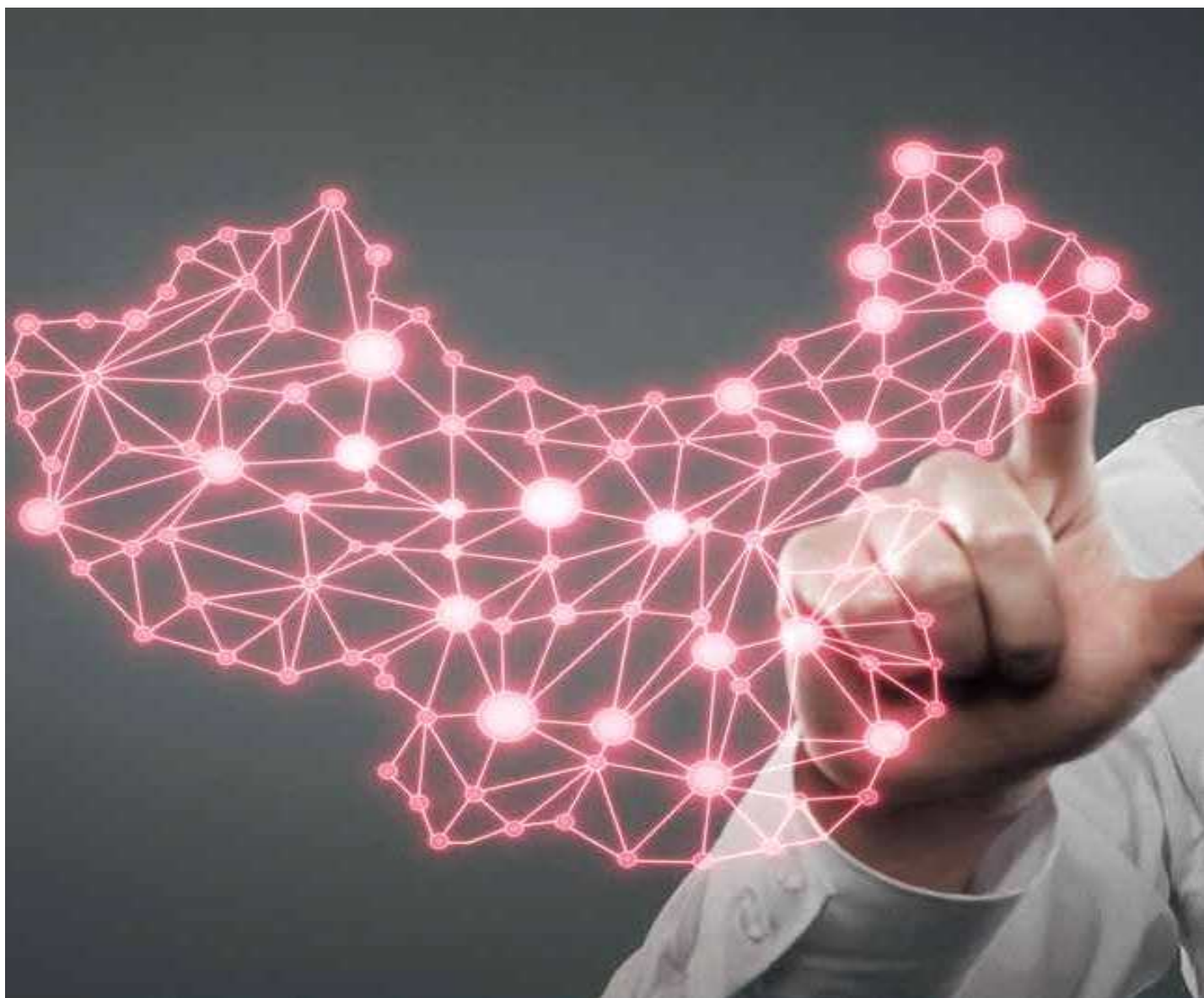


충청중국포럼

중국동향과 진단

No _ 01

2015.06



충청중국포럼(CCF)

중국동향과 진단

No. 01
2015.06



Contents

02 중국 동향과 진단

'신 실크로드 (一 帶 一 路)' 건 설 과 중 국 의
국 토 발 전 축

18 허베이-산둥통신

북경현대 창저우 공장 착공

허베이성 신에너지 산업 육성 계획

칭다오 신공항 건설

칭다오 신형도시화 계획

28 충청중국 포럼소식

충청중국포럼 출범기념행사 및 학술 세미나 개최

‘신실크로드(一帶一路)’ 건설과 중국의 국토발전축

충남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 중국연구팀

박인성 • 유광철

최근 중국정부는 성장률 정체와 내수 진작의 한계로 마땅한 투자 대상을 못 찾고 있는 중국 기업들에게 나라 밖에 새로운 투자대상과 신성장동력을 창출해 주기 위해 '일대일로(一帶一路)'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중국정부와 기업들이 이미 10 여년간 축적해 온 해외진출(走出去) 경험을 기초로 중국 국내의 발전축을 밖으로 연장하며, 육상 및 해상의 신 실크로드 교역로를 따라서 경제영토를 확장하겠다는 의도라 할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일대일로' 건설 추진배경과 목적, 그리고 이것이 중국의 국토발전축과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을 전망해 보고자 한다.

◎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 의 배경 및 개념

- 소위 '일대일로(一帶一路)' 란 중국이 유라시아 및 아프리카 대륙의 각 국가 주요 도시들과 교역로를 건설하면서, 기반시설 건설, 교역 및 금융협력 활성화, 과학기술교류 및 문화 교류 강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 '일대(一帶)' 는 베이징-시안-우루무치-중앙아시아-유럽을 잇는 내륙의 교통로와 그 연선에 형성될 경제지대를 가리키며 '육상 실크로드 경제벨트' 라고도 부른다.
- '일로(一路)' 는 취안저우(泉州)-푸저우(福州)-광저우-하이커우(海口)-베이하이(北海)에서 동남아시아의 베트남, 말레이시아 그리고 인도와 아프리카 나이로비를 거쳐 지중해로 이어지는 해상교역로를 가리키며, '21 세기 해상실크로드' 라고도 부른다.
- 이는 한나라 시기 개척된 이래 당나라 때 번성했던 중국과 고대 서역을 잇던 내륙 교역로, 즉 실크로드와 명나라 정화(鄭和)의 남해 원정 역사를 떠올리게 한다.
- 한편으론, 중국 국내에서 이제까지 개발에서 소외되었던 중서부 내륙지구와 중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각 국을 연결하면서 신성장동력을 만들어 내기 위한 것이다.

- ‘일대일로’ 노선은 북방노선 A, B, 중앙노선, 남방노선, 중심노선의 5 개가 있다.
 - 북방노선 A: 북미-북태평양-일본-한국-블라디보스톡-훈춘-옌지(延吉)-지린(吉林)-장춘-몽골-러시아-유럽
 - 북방노선 B: 베이징-러시아-독일-북유럽
 - 중앙노선: 베이징-시안(西安)-우루무치-아프가니스탄-카자흐스탄-헝가리-파리
 - 중심노선: 련윈강(連云港)-정저우(鄭州)-시안-란저우(蘭州)-신장-중앙아시아-유럽
 - 남방노선: 해상노선으로, 취안저우(泉州)-푸저우(福州)-광저우-하이커우-베이하이(北海)-하노이-쿠알라룸푸르-자카르타-콜롬보-콜카타-나이로비-아테네-베네치아를 바닷길로 연결



<그림 1> 중국의 일대일로 노선 구상도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 ‘일대일로’ 전략의 주요 내용은 중국과 연선 국가들 간에 정책, 도로, 무역, 화폐, 민심을 통하게 하겠다는 이른바 ‘5 통(通) 전략’ 이고, 이는 다시 ① 고속철도, 고속도로, 송유관, 광케이블, 항구 등의 기초 인프라 건설, ② 환전, 송금, 전자상거래 시스템 구축 등의 금융서비스 확충과 관세, 통관 시스템의 개선을 통한 무역 및 투자환경의 개선, ③ 유학생 규모 확대 및 공동 학교 설립, 상호 여행규모 확대 등 적극적 문화교류 활동으로 구분된다.

- 이는 중국이 개혁개방 이후의 경제적 성취를 바탕으로 아편전쟁 당시 자신이 당했던 바와 같이, 철도와 은행을 통해 주변국으로 연결하는 교역로를 개발하고 발전축을 형성하면서 자국의 경제영토를 넓히려는 의도라고 할 수 있다.
- ‘육상 및 해상 실크로드(一帶一路)’ 건설 전략의 주요 목적은 중국이 이미 수년전부터 축적해 온 해외진출(走出去) 경험을 바탕으로, 성장률 정체와 내수 진작의 한계로 마땅한 투자 대상을 못 찾고 있는 중국 기업들에게 나라 밖에 새로운 투자대상을 만들어 주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단 이제까지의 해외진출 및 개척방식과 다른 점은 중국 국내의 발전축과 인접 국가의 주요 도시를 연결하면서 중국과 연선국가 경제거점 도시들을 연결하는 경제지대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 즉, 중국 국내의 발전축과 육상으로는 중앙아시아와 유럽, 그리고 해상으로는 중국 동부 연해지구의 거점 항구도시들과 동남아-인도-아프리카를 거쳐 유럽과 연결하는 해상 교역로 개척과 연선의 주요 항구도시들의 거점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 주요 추진주체는 중국 국무원과 해당 지방정부의 각 부문과 이들이 중심이 되어, 중국과 협력국가와의 구체적 소통창구를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 상하이협력기구(SCO), 중국+아세안, 아태경제협력기구(APEC), 중앙아시아경제협력프로그램(CAREC Program) 등 기존 국제협력 체제의 틀을 적극 활용하고, 문화교류 측면에서 민간 차원의 자율적 교류를 적극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 중국정부의 ‘일대일로(一帶一路)’ 건설 추진 목적

-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등 아시아 신흥시장 진출을 통해 경제성장의 동력을 확보하고, 자국 내 과잉생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지역 26 개 국가와 직접 연결한다. 지역총인구 약 44 억 명(세계인구의 63%), 경제규모 약 21 억 달러(세계경제의 약 29%, 상품 및 서비스수출의 23.9%)이다,
- 자원과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 중국내 지역불균형과 도농 간 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서부대개발 전략과 해외 진출 및 개척사업과 연결하기 위한 것이다.
- 경제영토를 중앙아시아와 동남아시아로 확대하고,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응하기 위해서이다.

◎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 의 추진경과

- 2013 년 9 월 및 10 월 중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순방 중이던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習近平)이 카자흐스탄 나자르예프 대학의 강연에서 소위 ‘일대일로(一帶一路)’, 즉, ‘육상 실크로드경제벨트’ 와 ‘21 세기 해상실크로드’ 를 공동건설하자고 제안했다.
- 이어서, 리커창 국무원 총리가 ‘2013 년 아세안 박람회’ 에 참여하여 아세안 국가들에게 21 세기 해상 실크로드 건설에의 참여를 요청했다.

- 2014 년 10 월 24 일에는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AIIB)이 출범했다. 독일, 영국 등 유럽국가들이 참여했고, 2015 년 4 월 11 일에는 한국이 오스트리아, 스페인 등 가입신청국가들과 함께 창립회원국으로 확정되었다.
 - 2015 년 3 월에는 국가발전개혁위, 외교부, 상무부가 공동으로 ‘실크로드경제 벨트 및 21 세기 해상실크로드 공동건설 추진의 희망과 행동’ 을 발표해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 이후 국무원 각 부서와 지방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인 정책 및 사업방안을 작성, 제시하고 있다.
- 2015 년 3 월 28 일, 중국 하이난에서 열린 ‘보아오 포럼’ 에서 시진핑주석이 상호존중과 평등대우의 원칙을 중심으로 아시아 운명공동체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에 대한 실행의지를 다시 확인했다.
 - 2015 년 6 월 4 일에 마카오에서 개최된 제 6 회 국제기초시설투자·건설포럼에 참석한 31 개국 42 명의 차관급 대표들이 ‘일대일로’ 에 포함된 기초시설 건설 프로젝트가 아시아 경제발전 촉진에 도움이 되므로, 중국과의 협력을 희망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미얀마 건설부 장관은 ‘일대일로’ 의 초국경 건설 프로젝트 등 각종 사업을 추진을 통해 아시아 지역 발전과 미얀마 경제가 처한 여러 어려움을 타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표시했고,
 - 캄보디아 공공건설·사무부 장관은 캄보디아는 현재 중국과 ‘일대일로’ 관련 타당성 연구 진행 중이며, ‘일대일로’ 추진이 캄보디아 경제와 세계 경제 간 연계성을 증진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 중국 상무부는 현재 많은 국가에서 ‘일대일로’ 관련 기초시설건설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자금조달방식을 개선을 위해 민관협력(PPP) 방식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각 금융기관도 프로젝트 수행 기업을 위한 혁신적인 금융 상품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다.
- 중국교통건설유한공사(中國交通建設有限公司) 순즈위(孫子宇) 부총재는 이제까지와 달리 중국 건설기업들은 해외에서 공항, 도로, 물류단지 건설 완공 후에도 운영 등에 참여하여, 건설과 경영 간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중국동향과
진단
신
실크로드
건설과
중국의
국토발전축

● 해외특구 건설

- 최근에는 ‘일대일로(一帶一路)’ 건설 전략의 틀 안에서 해외특구인 캄보디아의 시아누크항 특구(西港特區)를 동남아시아의 전략거점으로 조성하고 있다.
- 중국 상무부와 재정부가 최초로 비준한 국가급 해외경제무역합작구(境外经贸合作区)인 시아누크항 특구(西港特區)는 현재 캄보디아내에서 최대 규모이고, 발전이 가장 양호한 단지(園區)이고, 우시(无锡)에 본부를 둔 홍도우집단(红豆集团)이 계획과 건설을 주도하고 있다.
- 캄보디아 수상 洪森이 중국 방문 시에 특별히 장쑤성 우시의 홍도우집단(红豆集团)을 방문했고, 시아누크항 특구가 ‘캄보디아의 선전(深圳)’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 중국과 중앙아시아 간 경제협력의 핵심은 자원영역과 자원 수송관 건설사업이고, 추진과정에서 환경과 기후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다.

● 몇몇 인접국은 중국이 ‘일대일로’ 건설을 통한 정치, 경제적 영토 확장 의도를 경계하고 있다.

◎ 지방정부에서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 추진 동향

● 중국 각 지역의 비교우위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영역에서의 역할 분담과 협력을 추진한다는 원칙 하에서, 각 지역별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 서부, 동북, 신장(新疆)지역은 독특한 지리적 위치를 활용하여 서부개발의 창구역할을 부여하고, 교통중추, 상업무역물류 및 문화과학기술교육의 중심으로 육성한다.
- 산시(陝西), 간수(甘肅) 지역은 종합경제문화중심지 기능을 강화한다.
- Ningxia(寧夏)회족자치구와 칭하이(青海) 지역은 소수민족의 인문적 특색을 살린 문화지역으로 육성한다.
- 네이멍구자치구와 헤이룽장성은 러시아 및 몽고와 연결되는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러시아 철도 네트워크 및 육해연합운송시스템을 구축한다.
- 서남, 광서 지역의 경우, 동남아 국가들과의 내륙-해안 연결의 이점을 활용하여 아세안국가들과 연결되는 국제통로를 건설하고, ‘해상실크로드(一路)’와 ‘실크로드경제벨트(一帶)’의 접점으로서 활용한다.
- 특히, 윈난(雲南) 지역의 경우, 메콩강유역의 경제협력의 분위기를 조성하여,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중국 간의 허브지역으로 육성한다.
- 시장(티벳) 지역은 네팔 등 국가와의 변경무역 및 여행문화의 중심지로 육성한다.
- 연해지역 및 홍콩, 마카오, 타이완 지역의 경우, 경제개방 정도가 높은 지역의 이점을 활용하여 현재의 경제발전 상태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며, 상하이의 ‘자유무역 실험구’와의 연계 개발을 추진한다.

- 복건성은 ‘21 세기 해상실크로드’ 의 핵심지역으로 육성하고, 해양남색경제 시험구와 저우산(舟山)군도신도시 건설, 하이난(海南) 국제관광개발과의 연계를 강화한다.

<표 1> 일대일로 전략 하에서의 각 지역별 주요 역할 배치 현황

지역	포지셔닝
광시(廣西)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 세기 해상 실크로드 간 연결
윈난(雲南)	베트남 메콩강 유역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확대
산시(陝西)·간수(甘肅)·닝샤(寧夏)·칭하이(青海)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 국가들과의 교류
네이멍구(內蒙古)·헤이룽장(黑龍江)·랴오닝(遼寧)·지린(吉林)	러시아 등 對북 개방의 주요 통로
상하이(上海)·광저우(廣州)·잔장(湛江)·푸저우(福州)·첸저우(泉州)·샤먼(廈門)	항구거점 및 국제 허브공항 건설

자료: 「推动共建丝绸之路经济带和 21 世纪海上丝绸之路的愿景与行动」, 国家发展改革委、外交部、商务部

- 현재 중국 내 각 지방 정부에서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과 관련하여 추진하고 있는 개별 프로젝트는 <표 2>과 같다.

<표 2> 지방 차원에서의 육상실크로드(一帶) 관련 추진 프로젝트 현황 - 계속

지역		거점 도시	주요 내용
동북	헤이룽장 (黑龙江)	-	- 동부연해에서 한국, 일본, 북미까지 국제 운수 체계 구축 - 국제 통관·운수 간소화 추진
	랴오닝 (辽宁)	-	- 유라시아 대륙을 연결하는 주요 거점 및 중국·몽골·러시아 경제 회랑의 핵심으로 지역 목표 설정
중부	후베이 (湖北)	-	- 유럽, 미국 등 선진국 경제체제와 홍콩, 마카오, 타이완의 경제 투자 협력 강화 - 우한~아세안, 우한~한국·일본을 연결하는 항공 운송 노선 건설
	허난 (河南)	-	- 아시아·유럽 벌크제품 무역 물류 센터, 실크로드 문화 교류 센터, 에너지 저장 운송 거래 센터 건설 추진
서부	신장 (新疆)	우루무치 (乌鲁木齐), 카스(喀什)	- 우루무치에 아시아·유럽 경제협력 시범구 설립 - 카스 종합보세구 설립
	칭하이 (青海)	시닝(西宁), 하이둥(海东), 저얼무(格尔木)	- 시닝~방콕, 시닝~서울, 시닝~타이베이 국제항공편 개통 - 국제상업지구, 보세창고 등 설립
	간쑤 (甘肃)	란저우(兰州), 바이인(白银), 주취안(酒泉), 자위관(嘉峪关), 둔황(敦煌)	- 란저우신구, 둔황국제문화관광도시, 중국실크로드박람회를 결합하여 3대 전략으로 추진

자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표 2 계속> 지방 차원에서의 육상 실크로드(一帶) 관련 추진 프로젝트 현황

지역		거점 도시	주요 내용
서부	산시 (陝西)	시안(西安)	- 중앙아시아 국가 및 호주와 자원 탐사 협력 강화 - 국가항공도시시범구, 에너지거래센터 설립
	닝샤 (宁夏)	-	- 중국·아랍국가 협력 포럼을 바탕으로 닝샤 내륙개방형경제시범구 조성
	네이멍구 (内蒙古)	-	- 만저우리(滿洲里)·얼론히오터(二連浩特) 국가중점개발 개방시범구와 후룬베이얼(呼倫貝爾) 중국·러시아·몽고 협력 선도구 발전 촉진, 중국·몽고 박람회 개최
	충칭 (重慶)	-	- 창장(長江)경제권 주변 지역 협력 촉진, 청위경제구 일체화 추진 등
	쓰촨 (四川)	-	- 현대 교통·물류 시스템 구축 - 청두신공항 등 공항 건설 추진, 국내외 항공노선 증편
	윈난 (云南)	-	- 동남아시아 국가의 은행, 증권 등 금융기관 유치
	광시 (广西)	-	- 베이부만(北部灣) 자유무역시범구 설립 신청

자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표 3> 지방 차원에서 해상실크로드(一路) 관련 추진 프로젝트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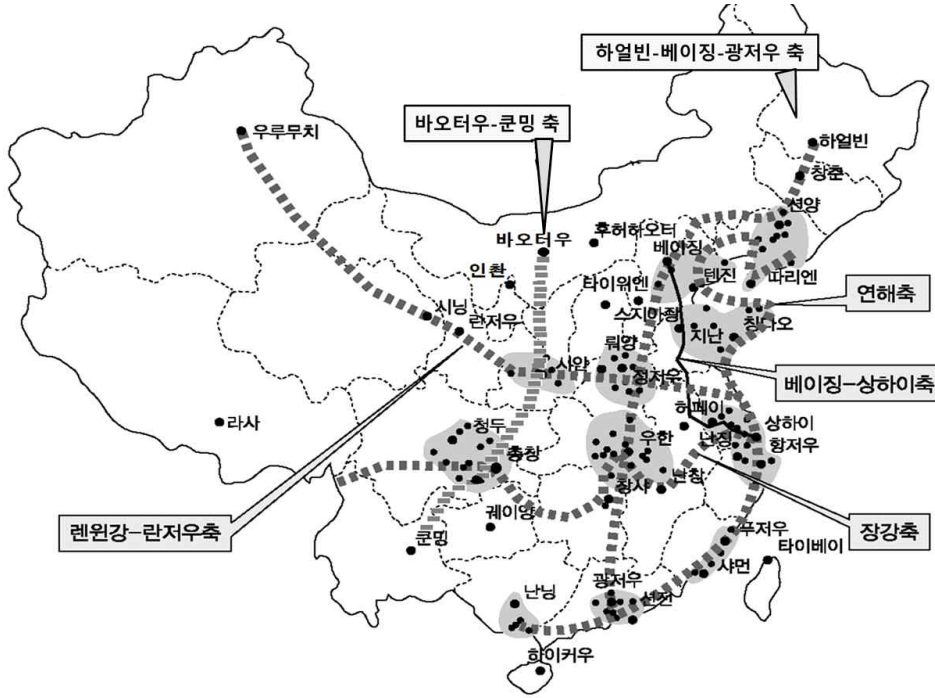
지역		거점 도시	주요 내용
화둥	장쑤 (江苏)	취저우(徐州), 롄윈강(连云港)	- 물류 측면에서 항구를 중심으로 국제무역로 구축
	저장 (浙江)	항저우(杭州), 닝보(宁波), 윈저우(温州)	- 닝보-저우산항(舟山港) 일체화 추진, 연해 항구-이우(义乌)국제내륙항 통합 건설 추진, 항구경제권 조성
화남	푸젠 (福建)	샤먼(厦门), 장저우(漳州), 취안저우(泉州), 푸저우(福州)	- 샤먼 동남국제해운센터 건설 - 샤먼 신공항 건설 추진
	광둥 (广东)	광저우(广州)	- 광저우항과 21 개 항구, 해상항구연맹 조직 - 아세안 국가와 항구 등 기초 인프라 건설 적극 추진
	하이난 (海南)	하이커우(海口), 싼야(三亚)	- 난하이(南海) 자원개발 서비스 기지, 해상 지원 기지 건설
환발 해	산둥 (山东)	르자오(日照), 칭다오(青岛)	- 8 개 노선의 철도와 15 개 고속도로 등 주요 교통 인프라를 주변 지역과 연계 - 동아시아 해양 협력 플랫폼, 한중 지방경제협력시범구 건설

자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일대일로(一帶一路)’에 따른 중국 국토발전축의 변화 전망

- 중국정부는 최근에 기존의 ‘3 종 2 횡’의 국토발전축이 ‘4 개 대구역(四大区域)과 3 대 지지구(支撐区)’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 ‘4 개 대구역(四大区域)’은 동부, 중부, 서부 3 대 지대와 동북 노후공업기지(东北老工业基地)를 가리키고,
 - ‘3 대 지지구(支撐区)’는 일대일로(一帶一路), 장강유역 경제지대(长江流域经济带), 베이징-톈진-허베이(京津冀) 협동발전(协同发展)지구를 가리킨다.

- 현재, 중국의 주요 국토발전축은 ‘3 종 2 횡(三縱二橫)’의 5 개축으로 남북 방향의 3 개축과 동서방향의 2 개축이 국토개발의 기본골격을 이루고 있다.(<그림 2 > 참고)
 - 남북방향의 3 개 축은, ①동부연해축과 ②베이징-광저우(廣州)간을 연결하는 징광(京廣) 철도축, ③네이멍구자치구 바오토크(包頭)와 윈난성 쿤밍(昆明) 간을 연결하는 바오크(包昆) 철도축이다.
 - 동서 방향의 2 개 축은 ①연장강축(沿長江軸)과 ②중국횡단철도(TCR), 즉, 렌윈강(連云港)에서 쉬저우(徐州)-정저우(鄭州)-시안(西安)-란저우(蘭州)-우르무치를 동서로 연결하고 중앙아시아로 연결되는 대륙교(大陸橋: land bridge) 철도축으로 ‘일대일로’의 육상실크로드(一帶)와 연결되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2> 중국의 국토발전축

중국동향과
진단
신
실크로드
건설과
중국의
국토발전축

◎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에 대한 평가

- 육해상 실크로드 건설에 따른 육로, 해상 교통망 구축은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통해, 중국 안으로는 중국의 남부와 서부로 향하는 교통축이 강화되고, 밖으로는 유럽국가의 시장, 중앙아시아의 에너지와 중국의 시장을 연결하면서, 세계의 공장인 중국에 에너지, 원자재, 시장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 ‘일대일로’는 30 여년 간 지속되어 온 두 자리수의 고속성장이 한계에 달한 ‘뉴노멀(新常态)’ 상태에서, 제조업 부문의 중복·과잉 투자를, 중국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을 통해 출구를 모색하려는 전략이라 볼 수 있다.

● 미국에 대응한 신형 대국 관계 구축

-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AIIB)의 설립, 브릭스(BRICS)개발은행의 설립, 중국과 아세안 각국의 은행과의 협력 등의 중국 주도의 국제 금융 체제의 구축은 세계은행(IBRD)과 국제통화기금(IMF) 중심의 미국 주도의 국제 경제 기능의 상당 부분을 보완·대체하기 위한 포석이라 할 수 있다.
- 미얀마,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스리랑카 등 중국 해군의 진출 지역 중 상당수가 미군 주둔지와 중복된다는 점에서, 중동, 벥골만, 남중국해 등지에서의 안보·에너지 수송 분야에서 미국이 지닌 패권에 도전하기 위한 틀을 구축하려는 전략적 의도도 있다고 볼 수 있다.

●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전략

- 개혁개방 이후, 누적, 심화되어온 동부 연해지구와 중서부 내륙지구와의 경제적 격차와 그에 따른 내륙지구 주민의 불만과 소수민족 자치구 지구라는 특수성까지 고려한 대책으로서 서부대개발 및 신형도시화 전략과 유라시아 대륙을 향한 교역로 개척사업과 연결하기 위한 전략이라 할 수 있다.

● 육상 실크로드 구축 계획은 박근혜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와도 연관된다. 따라서 우리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와 중국의 ‘일대일로’ 경제권 건설을

연계시키면서 한중간의 새로운 협력모델을 탐색해야 할 것이다.

- 한국은 세계 8위 무역대국이지만 북한에 의해 대륙으로 연결하는 육상통로가 막혀 있어서, 물류를 항공과 해운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므로, 북한 통과 또는 열차페리 등 ‘일대일로’에 연결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1. 2015. 3. 6. 중앙일보. “중국 전인대, 다시 성장을 고민하다”
2. 2015. 3. 28. 신화사 “推动共建丝绸之路经济带和 21 世纪海上丝绸之路的愿景与行动“
3. 2015. 6. 5. 经济日报

허베이 - 산둥통신

충남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 중국연구팀

◎ 베이징 현대(北京现代)의 창저우(沧州) 공장 착공, 2016년 낙성 목표.

- 베이징 현대가 베이징 외부 지역에 최초로 지은 공장으로서, 징진지(京津冀)-베이징, 텐진, 허베이성 - 협동발전의 국가적 전략에 부응하는 것일 뿐 아니라, 창저우지역의 징진지 산업 일체화 정책에서의 경제적 위상을 드높일 것으로 기대됨.

- 베이징 현대의 창저우 공장은 허베이(河北) 성 창저우경제개발구에 위치하며, 베이징에서 215km 떨어져 있고, 면적은 약 191 만 평방미터에 달하는 규모임.

河北通讯

베이징

현대,

창저우공장

착공

- 74.5 억 위안 규모의 투자이며, 120 억 위안의 연관 산업의 투자를 이끌어낼 것으로 예상되며, 초기에는 경차와 SUV 차량의 생산에 집중하지만, 장차 생산량을 확대해갈 계획임.
- 2014 년 베이징현대의 생산량은 112 만 대 규모이지만, 향후, 135 만 대 규모로 증가될 예정임.

- 창저우 공장의 착공은 여러 가지 지역적 이점을 고려하여 실시된 것임.

- 베이징현대 창저우 공장의 착공은 허베이, 산둥 등 주변 지역의 자동차 시장이 발전해 있을 뿐 아니라, 5 개 고속전철과 7 개 고속도로가 발달해 있는 등 교통이 편리하고, 130km의 해안선과 20 만톤 급 선박이 정박할 수 있는 항구를 보유하고 있음.
- 또한, 베이징에 비해 상대적으로 생산요소의 가격이 저렴할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차원의 대폭적인 정책적 지지를 받고 있음.

- 한편, 베이징 시는 1982 년 최초로 ‘수도권’의 개념을 제창하였는데, 현재 ‘징진지일체화’는 국가급의 전략으로 승급되어, 베이징의 산업생산 기능의 상당 부분을 텐진과 허베이성으로 이전하는 작업들이 추진되고 있음.

- 허베이성은 특히, 신에너지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중 자동차 산업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어, 지역의 종합적 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그러나 실질적으로, 베이징 현대의 창저우 공장 착공은 중국 서부내륙지역으로의 진출을 위한 일종의 ‘수업료 지불’이라는 평이 있음.

- 그 동안 현대차 공장의 입지에 따른 일자리 및 세수창출, 연관 산업에 미치는 투자 효과 등을 고려하여, 허베이성은 체계적으로 베이징 현대의 충칭진출을 반대해 왔음. 이에 현대가 창저우 공장을 착공함으로써 징진지 일체화 전략에 부응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실질적으로는 충칭 진출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실리를 얻고자 하는 전략으로 보임.

※ 참고문헌

1. 2015. 5. 19. 중국신문보. “京津冀一体化, 汽车业调整好时机”
2. 2015. 4. 7. 환구시보 사설. “布局京津冀北京现代开建沧州工厂”
3. 2015. 5. 12. 창저우일보. “沧州北京合作项目 421 个投资 2046 亿 促京津冀一体化”

◎ 허베이성, 각 지역별 특화 신에너지 산업 육성

- 허베이성 발전개혁위원회(河北省 发展改革委员会)는 《12. 5. 허베이성 신에너지 산업발전계획》에 따른, 성 내 각 시, 현의 신에너지 산업 발전 분포도를 발표함.
- 해당 계획이 2011-2015년 간의 산업 육성 계획이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신에너지 산업 배치도’를 발표한 것은 그 간의 신에너지 산업 육성에 따른 성과를 평가하고, 최근의 ‘신창타이(新常态)’ 정책기준에 따른 산업구조고도화 및 질적 성장의 추세에 부합하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됨.

河北通讯

허베이성
지역별
특화
신에너지
산업 육성

● 신재생에너지 산업 배치 현황



<그림 3. 허베이성 신에너지 산업 배치도>

출처 : 인민망(www.people.cn)

- <그림 1>과 같이, 바오딩(保定)은 태양광 발전과 풍력 발전을, 형수이(衡水)와 창저우(沧州)는 지열 발전을, 탕산(唐山)과 친황다오(秦皇岛)는 원자력 발전을, 싱타이(邢台)는 태양광 발전을 중점적으로 육성하였음. 인버터시스템은 스자좡(石家庄)과 싱타이(邢台)에 배치되며, 전력 저장 시스템은 한단(邯郸)에서 육성되어 왔음.

● 에너지원 별 육성 현황

- 태양복사에너지는 바오딩의 다결정규소(多晶硅)를 위주로 한 영리기업과 싱타이 닙진(宁晋)의 허베이 ‘징룽그룹(晶龙集团)’을 설비생산대표기업으로 육성하여 세계최대 규모의 규소생산기지과 실리콘칩 생산기업으로 나아가고자 함. 2013년 기준, 바오딩은 세계 제일의 태양광판 생산능력과 전국 2위의 전지 모듈 생산량을 갖추고 있음.
- 풍력발전의 경우, 허베이성 총생산능력이 3,000 조 와트(W)이며, 바오딩의 ‘중항회팅풍력발전설비 유한공사(中航惠腾风电设备股份有限公司)’가 국내 선도의 풍력발전기공급업체로 꼽히며, ‘바오딩티엔웨이그룹 유한공사(保定天威集团有限公司)’ 또한 국가급 대용량송전설비 제조기지로 꼽히고 있다. 실제, 2013년 독일과 협력하여 허베이성 풍력발전수소제조 시범프로젝트를 통해 10 만 kw의 풍력발전소를 건설한 바 있음
- 인버터시스템의 경우, 스자좡 ‘통합전자과기 유한공사(通合电子有限公司)’와 싱타이 ‘스다전자 유한공사(思达电子有限公司)’가 설비생산대표기업으로 꼽힘.
- 전력저장설비의 경우, 한단의 ‘베이팡알타에어나노기술 유한공사(北方奥钛纳米技术有限公司)’는 티탄산염 리튬전지를 주력 기술로 하며, 셔현(涉县)의 ‘허베이지에션신 에너지과학기술 유한공사(河北洁神新能源科技有限公司)’가 대표적으로 꼽힘. 실제, 한단시에는 3,000 무(亩)를 관할

河北通讯

허베이성 지역별 특화 신에너지 산업 육성

河北通讯

허베이성 지역별 특화 신에너지 산업 육성

하는 대형버스 충전소가 있으며, 15 분 간의 충전으로 350km의 운행이 가능함.

- 지열발전의 경우, 창저우의 ‘허베이이민우진제조 유한공사(河北益民五金制造股份有限公司)’가 지열원열펌프와 양방향 풍력-지열 에너지 전환조절기 부문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형수이의 ‘허베이과력에어컨공정 유한공사(河北科力空调工程有限公司)’는 발전보일러공기에열기와 에나멜 열전도 소자를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음. 실제, 허베이성 숭현(雄县) 총 에너지 저장량이 821 억 m³에 달하고 있으며 지열 집중공급 면적이 240 만m²에 달함.
- 원자력 발전의 경우, 친황다오의 ‘하덴그룹중형장비 유한공사(哈电集团)’가 고온고압핵전도설비 생산에서 중국 국내에서 중요한 입지를 점하고 있고, 탕산의 ‘중치징탕정밀단조 유한공사(中冶京唐精密锻造有限公司)’가 주체적으로 원자력발전밸브를 생산하고 있으며, 특히, 허베이성 과학기술청, 재정청, 발전개혁위원회에 의해 ‘허베이성중형장비에비응력제조공정 기술연구센터’로 인증되었음.

● 신창타이(新常态) 성장기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재조명

- 시진핑(习近平) 국가주석이 중앙재경영도소조 제 6차 조장회의에서 “에너지 공급 격식의 변화를 통해 국제에너지발전의 새로운 추세에 부합하고, 국가적 에너지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신에너지 생산과 소비방식의 혁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 신창타이 정책기조에 따른 산업구조고도화 및 생태환경문명사회건설 그리고 장진지일체화에 따른 지역정책의 구현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 참고문헌

1. 2015. 4. 23. 중국인민망 “河北新能源产业布局”

◎ 칭다오 신공항 착공, 2019 년 상반기 완공 목표

- 올 4 월 14 일 칭다오 공항공사가 남방의 여객과 북방의 화물운송의 수요증대에 부응하기 위해, 국제 선진의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기술, 에어컨 에너지 저장 기술을 갖춘 중심도시와 1 시간 거리로 통행 가능한 신공항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함.
- 2013 년 9 월 칭다오 시 구역에서 1 시간 거리에 위치한 자오둥(胶东)으로 공항 입지를 결정하였으며, 2014 년 10 월 국무원과 당중앙군사위원회의 비준을 획득한 바 있으며, 올해 5 월 15 일 국가환경보호국의 환경영향평가 비준을 획득함에 따라 더욱 탄력을 받게 되었음.
- ‘백년공항’을 목표로 건설을 추진하며, 종합교통, 스마트 공항, 인문공항, 녹색공항, 특색비즈니스 서비스 등 5 개 부문에서 업계를 선도하며, 비준, 계획, 설계, 환승 등의 방면에서 칭다오의 속도, 칭다오의 표준을 실현해 갈 계획임.
- 또한, 스마트생산, 스마트안전, 스마트서비스, 스마트상업, 스마트관리, 스마트교통, 스마트저탄소, 스마트물류, 스마트공항의 9 대 ‘스마트 계획’을 실현할 계획임.
- 신공항은 연간 3,500 만의 여객과 50 만 톤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으며, 연간 30 만 회의 이착륙이 가능한 규모로 설계됨.
- 공항 내 이동거리는 동급 규모의 중국 내 다른 공항과 비교했을 때 최단시간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여객기 75 대를 동

시에 딸 수 있는 최대 규모의 터미널을 건설할 계획이며, 신공항의 터미널 면적은 45 만㎡, 주 활주로는 3.6 km에 달함.

- 공항까지의 접근성은 산둥반도 전체에서 2 시간, 칭다오 시 구역에서는 1 시간 반, 칭다오 중심 시가지에서는 1 시간 내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공항철도와 각 노선 버스를 중심으로 하는 교통시설을 확충할 계획임.

※ 참고문헌

1. 2015. 4. 13. 청도시 인민정부. “青岛新机场建设突出五个特色”

2. 2015. 6. 4. 청도신문. “十大村庄或为青岛新机场让行土地征迁等待就位”

山东通讯

칭다오

신형도시화

계획

2020 년까지

상주인구

1,000 만 목표

◎ 칭다오신형도시화계획, 2020년까지 도시상주인구 천만 명 목표

- 중국 국무원은 2014 년 4 월 국가신형도시화계획(2014-2020)을 발표하면서, 2020 년까지 약 60%의 도시화율을 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 신형도시화는 소강사회 건설을 목표로 하며, 신창타이 경제 성장의 기초와도 맞닿아 있으며, 인간중심의 도시화, 소성진의 도시화, 고용구조 개선 및 등등을 위한 도시화의 기초를 바탕으로 추진하는 공간정책임.
 - 핵심은 호구제도 개혁을 통한 농촌소성진의 도시화임.
- 작년 연말, 칭다오시 신형도시화계획(青岛市新型城镇化规划)이 발표된 이후, 최근 세부항목에 해당하는 후속정책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음.

- 기본적으로 2020년까지 농업인구의 시민화를 통해 추가로 170만 가량의 인구를 칭다오시에 정착시키며, 75% 가량의 도시화율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임.

● 한편, 신형도시화의 구체적 정책 방향으로서, 도농일체화, 과학합리적 발전모형의 채택, 행복한 생활환경의 조성, 신형도시화 체제의 내실화 등의 실현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정부주도, 계획주도, 민의존중, 시장운영의 원칙에 따라 성중촌(城中村)의 개조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집체소유자산의 ‘공사체제 운영’ 방식으로의 개혁을 통해 2020년까지 164개 성중촌의 개조를 추진하고, 32.3만 명의 시민화를 추진하고자 함.

山东通讯

칭다오

신형도시화
계획

2020년까지

상주인구

1,000만 목표

- 호적제도의 개혁과 새로운 인구서비스 및 호적 관리제도를 실시하여, 도시와 농촌 간의 인구유동을 가로 막던 장벽을 점진적으로 제거하고, 도·농간, 지역 간 협동 발전을 추진하고자 함.

● 농업기지화, 공업원구화, 고차위 서비스업의 집적화를 통한 산업공간구조의 재편을 추진하고자 함.

- 시정부의 재정지원, 조세감면, 창업투자유치, 정책성 금융, 소액 무담보대출 등을 통하여 벤처형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창업보육센터와 국제무역집중구 등의 개발을 추진하기로 함.

- 칭다오의 현대산업체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산업, 인구, 생산요소의 공간적 집중과 융합을 추진하고, 남색경제산업과 각종 첨단서비스업의 기능을 도시에 집중시켜, 2020년까지 150만 개의 고용을 신규 창출하고자 함.

● 시 전역에 걸친 기초 공공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시 전역에 걸쳐 안전하고, 고효율의 현대화된 기초 인프라를 구축하며, 용수공급, 온수 공급망, 인터넷망, 하수처리시스템, 쓰레기처리시스템, 정보서비스 수준을 대폭 개선하고자 하며, 특히, 시 지역과 농촌지역이 일체화된 생활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공공유치원, 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인구규모에 비례하여 설치하고, 교사의 농촌지역과 시 지역 간의 순환 근무를 확대하며, 국가급-성급 의료센터를 건설하여 인구 천명당 병상수를 6 개까지 확대하고, 모든 사구(社区) 지역마다 1 개의 보건소를 설치하고자 함.
- 양로서비스체계를 강화하고, 시-구-현-촌 단위의 문화서비스체계를 강화하며, 전 사회에 무료로 공공문화공간을 개방하고자 함.
-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을 연결하는 대중교통서비스를 강화하며, 시장에서의 자본유치를 통해 농촌지역 공공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함.

山东通讯
칭다오
신형도시화
계획
2020 년까지
상주인구
1,000 만 목표

※ 참고문헌

1. 2015. 4. 13. 청도시 인민정부. “青岛新机场建设突出五个特色”
2. 2015. 6. 4. 청도신망. “十大村庄或为青岛新机场让行 土地征迁等待就位”

충청중국포럼

- 2015. 5. 21. 공식 출범!

충남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 중국연구팀

◎ 충청중국포럼 출범기념행사 및 기념학술세미나 거행

- 지난 5월 21일, 충남연구원 및 충청남도, 당진시 공동주최로 ‘충청중국포럼’ 출범 기념행사 및 기념학술세미나가 당진시 문예의 전당에서 개최되었다.
- 출범기념식에는 강현수 충남연구원장, 허승욱 충청남도 부지사, 김홍장 당진시장, 이재광 당진시의회 의장, 아이홍거 주한중국대사관 교육참사를 비롯한 300여 명의 도 내외 인사들이 참석하였다.
- 이어진 기념 학술세미나는 송두범 충남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장의 사회로 강희정 교수(한밭대학교 국제교류원장)의 ‘한중 지방차원의 관산학 교류 협력 방안’ 그리고 홍원표 박사(충남연구원)의 ‘철강도시의 미래와 발전 방향’에 대한 발표가 진행되었다. 이어서, 조원갑 충남도정책기획관, 오광진 기자(한국경제신문 중국전문기자), 김부용 박사(대외경제정책연구원), 장철순 박사(국토연구원) 등 전문가의 열띤 토론이 있었다. 특히, 아이홍거 주한중국대사관 교육참사는 유창한 한국어로 양국간 문화 및 교육 방면의 교류 중요성을 강조했다.
- 또한, 박인성 충남연구원 중국연구팀장의 사회로 ‘대중국 교류 및 사업 추진 경험교류’ 세션이 진행되었는데, 아산시와 보령시의 현장감 넘치는 대(對)중국 교류 사례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 충청중국포럼 월례학술세미나 개최

- 충남연구원 중국연구팀은 충남도내 중국 교류 관련 업무 담당자 및 중국 관련 정보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여, 매월 넷째주 수요일에 월례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 6월 학술세미나는 6월 25일 목요일 오후 4시, 충남연구원 1층 대회의실에서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김한수 본부장을 모시고, ‘뉴노멀 중국경제와 한중경협 미래’를 주제로한 기조강연과 참여자들의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이오니, 애정 어린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충남연구원 홈페이지(www.cni.re.kr)에서 쉽게 볼 수 있으며, 인용시 출처를 정확히 밝혀주세요!
- 본 발간물에 수록된 내용은 충남연구원 중국연구팀과 외부필진이 정리, 해석한 것으로서, 충남연구원 및 충남도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 문의사항 : 충남연구원

중국연구팀(yookwang1234@cni.re.kr, 041-840-1175)

